

# 강기정·홍준표 “무안·대구 관문공항 육성해야”

MBC 100분토론서 이야기 나눠 ‘수도권 블랙홀’ 대책 마련 촉구 영호남 반도체 동맹 ‘한목소리’ 강, 정무수석 만나 현안 건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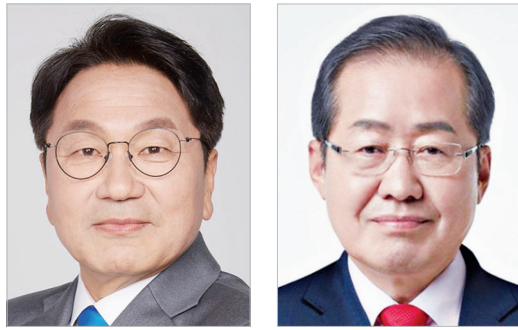
금융, 교육과 문화까지 수도권 독점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뜻을 같이하고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정부 차원의 지방 소멸 대책을 촉구했다.

이를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는 관문공항 육성을 강조했다.

홍 당선인은 “70-90년대에는 고속도로가 경제발전 원동력이었다면, 지금은 공항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며 “원활한 인적·물적 수송이 가능한 하늘길이 열리지 않는 도시는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항공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을 통하고 있는데, 지리적 위치상 북한 도발 등 유사시 가장 취약한 지역임에도, 인천공항 독점 현상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20%씩만 무안, 부산, 대구공항 등으로 옮기는 것도 지방소멸 극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당선인은 관문공항 육성과 함께 신산업인 재양성 인프라에 방점을 찍었다.



강기정

홍준표

강 당선인은 “무안공항을 호남 관문공항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는 광주시장 공약이기도 했다”며 “새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굵직한 세부정책 이끌어 내기 위해 대구와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론을 이긴 경제성장론은 없었고, 인위적 산업 자원 재배치 만능이나 전문교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영호남 반도체 동맹’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

강 당선인은 “산업동맹에 지역 공동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광주와 대구가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맺어 정부에게 수도권 중심 권력분산을 주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홍 당선인은 “대구도 경북대를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양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며 지방 중심 반도체 산업과 인재 육성에 공감했다.

윤석열 정부와 현 정국에 대해 홍 당선인은 “윤 정부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강 당선인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책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연이은 선거의 패배에 기인한다. 어떤 이유로 패배했는지 평가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이날 지역 현

안 사업 건의를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해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 3대 현안과제 해결을 건의했다.

이날 강 당선인은 ▲국가주도 공공항 이전 ▲복합쇼핑몰 유치시 국가 SOC 지원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선정 등을 건의했다.

강 당선인은 “광주 공공항 이전을 위한 국가 지원과 역할을 요청하며 광주와 대구 공항 이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국가 SOC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정부도 광주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의 국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고, 복합쇼핑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광주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철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무안과 대구 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해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지역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두 당선인은 21일 오후 ‘지방소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회 출연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두 당선인은 보수·진보정당 모두 균형발전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나 정치는 물론 산업과



여주테니스장 재개장식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22일 오전 여주테니스장에서 열린 재개장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국내외 청년 자원봉사로 ‘전남 섬 가치’ 확산

도, 8월 24일까지 국제 워크캠프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25개국 청년 100명이 전남 섬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전남 갯벌의 가치를 확산할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가 22일 2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내외 청년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3회 국제청년 섬 워크캠프’를 오는 8월 24일까지 보성·신안·

여수·진도·완도·고흥 6개 시군 9개 섬에서 일자별 각 9명에서 최대 15명으로 팀을 꾸려 진행한다.

청년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홍보·보존 캠페인, 섬마을 학교 연계 글로벌 문화 캠프, 해안 쓰레기 정화 활동 등 섬 주민과 함께하는 다국적 봉사활동에 나선다.

꼬막과 빨배 어업으로 유명한 보성 장도를 시작으로 신안 선도·기점소악도, 여수 개도·대항

간도, 진도 관매도, 완도 생일도·소안도, 고흥 연흥도에서 잇따라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이어간다.

올해 워크캠프는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전남 가고 싶은 섬’과 외부 자원봉사가 필요한 도내 섬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청년들의 캠페인 홍보 방법이 이색적이다. 해안 쓰레기를 수거·활용해 세계유산 로고를 제작, 섬 방문객을 대상으로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의 보편적 가치를 소개하고 국내외에 널리 홍보한다. /길용현 기자

## 농촌협약 공모 2년 연속 ‘전국 최다’

도, 4개 시군 1,200억 확보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순천, 구례, 해남, 함평, 4개 시군이 확정돼 전국 최다 선정 성과를 거뒀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미래형 농촌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종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3년부터 착수하는 농촌협약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일반농산어촌지역 113개 시군 중 시·도 평가를 통과한 38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1개 시군을 확정했다.

심사 결과 시·도별로 전남과 충남, 경북이 각 4개 시군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3개 시군, 충북·전북 각 2개 시군, 경기강원 각 1개 시군이 선정됐다. 2020년 공모가 첫 시작한 후 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개 시군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선정된 4개 시군은 연말까지 평가 시 제출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보완·조정 작업을 거쳐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시군이 농촌협약을 한 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군별 국비 최대 300억 원 규모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장기발전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20년)’과 실행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5년)’을 반영해 농촌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사회서비스·공동체 육성은 물론 농촌환경·농업유산·생태·경관 등 농촌다움을 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가 이번 공모에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된 데는 지난해보다 교육 및 컨설팅 강화를 위한 사업비 투자를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교육 및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 중앙평가의 중요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계획서를 집중 보완하고, 전문가를 위촉해 10여 차례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해 계획서 내용의 질을 향상한 것이 한몫했다.

또한 시군은 공모 선정 전제 조건인 시군 전담부서 신설,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등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주민들도 큰 힘을 보탤다. 농촌협약 공모 필수요건인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민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다 선정을 이끌어 냈다. /길용현 기자

#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다스코(주)는 흥익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2023년 매출 5,000억원 목표



SOC사업

가드레일 / 교량난간 / 터널 방음벽 / 방음벽



신재생 e.사업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건축자재사업

합판탈형 데크플레이트 / 스틸 데크플레이트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WBM사업

구조용 선조립 / 용접철근(WBM)  
BIM모델링

##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본사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로길 26-2 TEL. 061)370-2144  
서울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길 26 H비즈니스파크 C동 801호 TEL. 02)3440-7800

당진1공장 (데크플레이트)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361-15 TEL. 041)431-8200  
당진2공장 (단열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산단1로 50 TEL. 041)431-8259

영남지사 부산시 동구 초량동로 29 KCA빌딩 405호 TEL. 051)518-3702  
새만금공장 (WBM)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동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 블럭 2로트

다스코 가족회사 | 다스코 | 쓸에코(수상태양광) | 세라코(점토벽돌, 외장재, 수처리) | 가스코(가드레일, 교량난간) | 스틸코(철근유통·가공) | 학교법인흥인학원(영산중·고등학교) | 흥인(부동산 임대업)